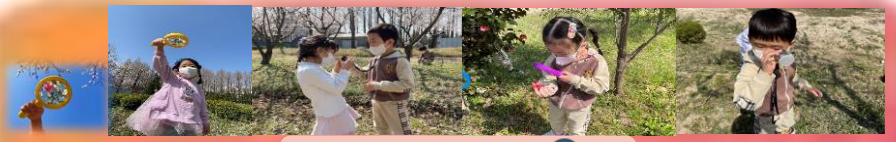
나리반에 봄이 왔어요

봄 느끼기

"날씨가 따뜻하다." "우와! 팝콘처럼 예쁜 꽃도 많이 폈어!"
산책을 하면서 만난 푸릇 푸릇한 새싹, 활짝 핀 꽃, 다양한 곤충들을 통해 나리반 아이들은 봄이 온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.



봄꽃 관찰하기

나리반 아이들은 루페와, 돋보기를 이용해 어떻게 놀이 할까요?
"선생님 저는 루페 안에 돌, 거미, 꽃을 넣어서 볼래요!" "선생님 꽃을 돋보기로 보면 이렇게 크게 보여요! "
" 선생님! 이렇게 꽃을 올려놓고 아래에서 봐 보세요!" "어때요? 정말 예쁘죠?"
루페 안에다 놓고 관찰하는 아이들, 돋보기로 관찰하는 아이들, 내가 찾은 자연물을 돋보기 위에 올려놓고 하늘 보기 거울처럼 보는 아이들의 모습 등 각자 자신이 탐색해 보고 싶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봄꽃을 관찰해보았어요.

봄

봄꽃으로 놀이하기

<봄꽃으로 만들 생일 케이크>
"우리 ○○이의 생일이니까 생일 케이크 만들어 줄까?
"그럼 이 꽃을 생크림이라고 하고, 이 꽃을 초콜릿이라고 하자."
"그래! 그럼 초는 나뭇가지로 하자!"
그때 한 친구가 바닥에서 ㄷ 모양의 쇠를 발견해요.
"여기 이쪽만 조금 잘려있으면 7이 될 텐데…. 선생님 이거 자르는 거 도와주시면 안 돼요?
교사가 도움을 주어 7모 양이 완성되자 아이들은 케이크 위에 초를 올려놔요.
그리고 다 같이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주며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었답니다^^

<봄꽃과,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>
"선생님! 저희 자유놀이 시간에 만들기 하던 거 밖에 가지고 나가서 놀아도 돼요?"
나리반 아이들은 자유놀이 시간에 그리던 그림들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요!
내가 그린 토끼 얼굴 위에 예쁜 꽃잎을 주워 귀여운 토끼를 완성하기도 하고, 나뭇잎으로 사람 머리카락도 표현해봐요^^

나리반이 느낀 봄 표현하기

나리반이 느끼고 있는 봄은 어떤 모습일까요?

나리반이 생각한 봄의 소리는 '톡톡톡톡톡' 이래요. 왜냐하면 무엇인가 밑에서 위로 올라 올 때 톡! 하고 소리나는 것처럼 새싹이 나고 꽃이 필 때도 톡톡! 소리가 날 것 같다고 이야기 했어요.

나리반이 봄을 만나서 느낀 마음을 노래로 개사 해 보았어요.
나리반이 만난 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?
또 자연물로 꾸민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?